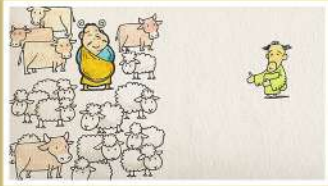


다윗 이야기

⑮ 다윗의 회개



나 레 이 셴 다윗왕은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밋세바를 보고, 악한 마음이 생겨 우리야 장군이 죽도록 명령하고는 밋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.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일로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.
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.



다 윳 오~ 나단 선지자님 어서 오십시오. 그래 어떤 일이십니까?
나 단 왕이시여,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



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,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.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.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 말고는, 아무것도 없었지요. 이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기르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마치 한 가족처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사는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.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에게 양이나 소를 잡아서 대접해야 하는데, 자기의 그 많은 양떼나 소떼 중에서는 한 마리도 아까워했습니다.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,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.

다 윳 이런 버러지 같은 놈이 있나! 내 맹세컨대, 그 부자 녀석을 반드시 잡아다 크게 혼쭐을 내겠습니다.



그리고 그는 부자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, 그 어린 암양을 네 배로 갚아야 합니다. 그런데 그 나쁜 녀석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?

나 단 임금님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!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



"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, 또 이 나라의 왕궁을 너에게 주고 너에게 많은 아내들과 많은 자식을 주었건만 너는 어찌하여 또 남의 것을 빼앗아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? 너는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도다! 네가 이렇게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욕심대로 행했으니 이제부터는 네 집에 큰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!"



- 다윗** 주님 다 아셨군요... 주님,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.
흑흑흑..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죄를
저질렀습니다. 흑흑흑...
- 나단**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.
왕께서 왕의 죄를 뉘우치시고 회개하시니 하나님께서
용서해주시겠지만,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주어질 것이니
명심하십시오.
- 다윗** 주님, 내가 주님께 범죄 하였습니다.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.
아, 하나님,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
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.
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,
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.
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,
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.
-
- 나 레 이 션**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은 일에
대해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깊이 뉘우쳤습니다.
다윗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이후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
기억하고 늘 성령을 의지하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.